

마을공동체 복원 '양동새뜰' 재개발 대안으로

서구, 집수리 등 11개 과제 선정 노인 일자리·공동 작업장 마련 36억원 투입 2019년까지 완료

광주시 서구청이 관내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복원, 주민의 거주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양동새뜰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4일 서구청 마을지원종합센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양동새뜰사업(코디네이터 이봉수 박사) 자문회의가 지난 2일 서구청 옆 마을지원종합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자문회의에는 노경수 광주대 교수, 김인호 조선대 교수, 박성진 건축사, 최미라 건설기술교육원 교수, 송대우 서구청 도시재생과장, 정상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양동새뜰사업은 서구 양동 20번지 일원 5만 5686㎡에 거주하는 223호 43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019년까지 36억 여원을 들여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마을공동체



광주시 서구청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복원사업인 양동새뜰사업이 지난 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사업을 맡고 있는 이봉수 박사는 이날 회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구청 제공>

복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공동이용 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봉수 박사는 현지조사를 거쳐 주택

대부분이 30년 이상 목조주택으로 붕괴에 취약하고,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공폐가 역시 79호에 달해 주거지 환경 개선과 이를 실행하는 단

계에서 주민 간 상호 이해 조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민들의 역량 강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업 참여 유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경수 교수는 "광주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지역의 편의성을 높여 거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부지가 이번 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서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부담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마련, 일자리 소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봉수 박사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수리, 안전시설 정비 등 11개의 과제를 도출했으며, 공동주택만큼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공모

광주평생교육원 7일 설명회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윤)은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주사랑 문화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설명회를 7일 오후 2시 진흥원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사업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애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 주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예시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제도의 이해, 주민간 갈등관리, 주민총회 운영방법 등) ▲광주 역사문화

5.18 마을학교, 무등산 예술학교, 김현승 시인학교, 마을길 스토리텔링 등)으로 다양한 시민교육과 활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소재 평생교육법·개발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 및 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협의체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오는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은 사업당 500만 원 내외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및 설명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062-600-5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광주경찰청, 공직 부패 감시 협력

광주시는 지난 2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앞으로 공직사외 부패행위 감시활동 및 관행적인 부패문화 척결,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부정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활동 등 청렴실천운동을 함께 펼치게 된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을

지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광역시총연합회와 청렴 실천 운동 MOU를 체결하고, 한전 등 나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과 함께 '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브랜드로 농가 소득 올리자" 8일까지 수강 신청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산물의 6차 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특색 있는 마케팅 역량강화와 농가소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2일부터 7월11일까지 ▲농특산물 가공 판매를 위한 기초기반 조성 ▲농가 특색을 더한 나만의 마케팅 전략 ▲스토리 농업의 힘·가치 ▲광주 농업, 이야기 웃을 입다 ▲스토리 활용 사례 ▲브랜드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방법 등 총 10회 과정이 진

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의 열린마당/교육 및 공직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농촌지원팀(062-613-5312).

모집 대상 및 인원은 농산물 6차 산업화에 관심 있는 시민 30명이며, 오는 8일까지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in-sun9917@korea.kr)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족구병·볼거리·수두 증가...여름철 감염병 주의보

"기침 손 대신 소매로 가려야"

집단 설사 보건소 신고 필수

최근 때 이른 무더위와 고온현상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수족구병 등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가 예방 활동에 나섰다. 시는 특히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의 높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5세 이하 영유아에서 발열 및 입안, 손,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수족구병의 신고건수가 지난 4월 표본감시 기관 외래환자 1000명 당 1.1명에서 5월 현재 11.4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유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어 고열,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대상 전수 감시 5월 신고 건수가 수두는 279건, 유행성이하선염은 93건으로 전월 대비 수두는 65%, 유행성이하선염은 12%가 증가했으며, 매년 4~6월, 10월~이듬해 1월 사이에 많

이 발생하는 계절적 유행 특성을 가진 질환으로 한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

3~10세 연령에서 잘 발생하는 수두는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 가량 지속되고,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80%에서 귀밑 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 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4~9세, 13~18세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전파되지만,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어 아동 보호자는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등의 질환이 주로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및 집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더워지는 날씨만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져 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 긴 소매 옷 착용 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냉방기 사용이 본격화되는 여름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레지오넬라증이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침투하여 독감이나 폐렴 형태의 감염을 일으킨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만성 폐질환자, 당뇨, 고혈압 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호텔,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냉각수 등에 균이 번식할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은 "여름철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익혀먹기 등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고 기준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집단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의무 건보 광주본부 집중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호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